

“독일서 사물놀이·부채춤...전통문화 자부심 쑥쑥”

광주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단
뒤셀도르프 ‘로젠몬탁’ 축제행사 참가
현지 학생들과 공기놀이·딱지치기도

광주 학생들이 독일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5·18 광주정신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경선 교육감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명으로 구성된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단’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독일에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주 학생들은 지난 3일 독일 대표 축제인 뒤셀도르프 ‘로젠몬탁(Rosenmontagszug)’에 참가했다. 로젠몬탁은 사순절에 맞아 사람들에게 사랑과 초콜릿을 나누주고, 가장행렬을 하는 독일의 대표 축제다.

광주 학생들은 이번 축제에서 사물놀이와 부채춤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음악과 춤을 알렸다. 특히 사물놀이와 부채춤을 하는 학생들의 화려한 의상과 강렬한 리듬, 아름다운 모습을 본 독일인들은 연신 감탄사를 외치며 호응했다.

광주 학생들은 축제가 끝난 후 함께 행사를 즐긴 독일 태권도반 학생들에게 공기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설명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3일 독일 뒤셀도르프 ‘로젠몬탁’ 카니발에서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단에 참가한 광주 학생들이 사물놀이 공연을 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단은 오는 8일까지 △과도광부 간호사 기념회관 방문 및 감사 편지 낭독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시사점’ 강연 청강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5·18 플래시몹 △라이프치히 케플리고등학교 학생들과 ‘소년이 온다’ 독서토론 등을 진행하며 독일의 민주주의, 통일, 정치참여 교육을 체험하고, 우리 전통문화와 5·18 광주정신을 전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김혜주 학생(전남여상 2년)은 “우리 전통문화인 사물놀이와

부채춤을 본 현지인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며 “케플리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알릴 수 있는 독서토론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독일의 통일 과정과 정치 참여 교육을 체험하며 의견을 넓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인목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3월 5일 수요일



“해빙기 취약시설 위해요소 발굴” 전남도, 교량 건설현장 등 점검

전남도는 4일 고흥군에 위치한 용정 1교와 용정 3교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세중~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을 특별안전점검을 위해 진행했다.

전남도는 이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교량 구조물을 직접 점검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8개분야 취약시설물 1만1900개소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항구적인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시설물과 건설현장이 대형화해 가는 추세다”며 “이번 해빙기 취약시설물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발굴·해소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역량강화 전략워크숍

광주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은 지난 27, 28일 이틀간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팀별 전략과제 발굴 및 활력있는 조직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임직원 전략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전략워크숍은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협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One Team!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을 주제로 직원 동기부여 및 전략수립을 통한 조직기반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액셀러닝 김주현 대표의 강의를 시작으로 웰빙 조직을 위한 ‘액셀러닝’, One on One 대화, 팀별 OKR 수립, 캘리워킹 및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대삼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직원이 공감하는 조직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민의 행복파트너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의 기회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의 역량강화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육상 발전 은 힘”

대한육상연맹 공로상 수상...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 기여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해 한국 육상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육상연맹 공로상을 수상했다.

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이날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심재용 광주시 육상연맹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육상연맹 공로상을 전달받았다.

전 회장은 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후 기초 종목인 육상 종목 저변확대 등 육상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며 고민해왔다. 광주시청 육상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끝내부 선수 조기 발굴의 일환으로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대회도 개최했다.

광주는 지난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육상 고승환(광주시청)이 4관왕, 육상 1600m 혼성계주에서 광주시청팀이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대한육상연맹은 전 회장이 광주시육상이 전국을 제패할 수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대한육상연맹에서 보내준 뜻깊은 상에 감사하다. 기초 종목인 육상이 발전해야 다른 종목들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은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곡성군-전남개발공사, 청년 주거 안정 ‘맞손’

지역 활성화 공공주택 건립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업무협약

곡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전남개발공사와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곡성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력을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사업이다. 총 70세대 규모로 신촌부부형 28세대, 청년형 42세대를 곡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부지 제공, 사업비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을 맡으며, 전남개발공사는 공동주택의 건설, 인허가 절차 등을 수행하고, ‘건설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및 품질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상태 군수는 “이번 사업이 곡성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새학기 초등학교 인근 위해요인 살피

민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불법광고물 등 집중

광주시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광주시와 차지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155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울 중심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등·하교 시간대 과속·신호 위반, 일시정지 미준수 등 운전자 안전운전 여부를

단속한다. 통학로 인근 공사장 안전관리, 불법 적치물·입간판 등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초래 요인, 노후·파손 안전시설 등 통학로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봄철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와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방학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및 작동상태, 보관 식품 소비(유통)기한 등도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동단속반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법전광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유해물 표시 등을 단속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 유해 불법 광고 등 불법광고물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고물 등을 점검한다. 노후·불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

고물,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통학길에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기간 동안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안전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배복한 시민안전실장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등교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위해요소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든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고하면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성보급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은세 (음력 2월 6일)

48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 보라
60년생 나의 능력이 녹슬지 않았다
72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힐 것
84년생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
96년생 웅돈이 막히는 날
51년생 둘 다 내것이 아니니 빨리 건네주라
63년생 신뢰하는 이가 더 많으니 안심
75년생 고노는 삶을 송취시키기에 충분
87년생 문서 결정은 피해야 한다
99년생 여차피 인연이 없으니 양보할 것
54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 것
66년생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보라
78년생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때
90년생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57년생 서두르지만 없으면 재물은 나의 것
69년생 최상의 컨디션이니 술을 풀린다
81년생 기력만 허비하게 되니 기다려야
93년생 금전이 생기니 지출할 곳이 많다

49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마무리 된다
61년생 원하는 부동산 거래 이뤄진다
73년생 매사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85년생 이득이 따르는 거래가 이뤄진다
97년생 뒷사람과 서둘러 화해할 것
52년생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할 수 있는 날
64년생 집 장만에 허점이 보인다
76년생 무언가 잘 되어가는 징조가 보인다
88년생 시가상조임을 분명히 알 것
55년생 조금까지 말고 기다려 보라
67년생 답답한 마음 가능 길이다
79년생 미워도 표시 내지 말아야 한다
91년생 징조가 보이면 처리해야 할 것
58년생 궁지에 몰려도 살아가는 방도가 있다
70년생 입과 몸만 바쁘고 매사 부진
82년생 좋은 아이템이라도 헛수고 하는 날
94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해야 함

50년생 가족간에 불화의 징조가 보인다
62년생 지식이 관재수 있으니 주의
74년생 대범하게 대처하면 남매는 면할 것
86년생 지금이 재산증식의 기회
98년생 뒷사람과 충돌이 있다
53년생 가족들과 원거리 여행은 금물
65년생 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이 성사된다
77년생 기본적인 것을 중용해야 함
89년생 지인 도움으로 금전이 들어오는 날
56년생 귀하게 하는 편이 훨씬 편함
68년생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80년생 도로상의 사고 주의
92년생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 버릴 것
59년생 명예와 재물이 함께 들어올 것
71년생 단기적 투자는 좋은 결과
83년생 일부러 저조할 필요까지는 없다
95년생 짐책을 버리고 객관성을 도모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